

# 6조3천억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검토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무회의 심의 통과 광주 에너지 중심·전남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기틀 마련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를 포함한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동서 화합을 위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앞서 울국비에 사선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광주는 미래 첨단산업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중심 핵심 거점 등이 조성되고,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휴양 벨트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SOC 기반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특히,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와 산업단

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2022년까지 거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 182개를 유치하고, 노사 상생을 통해 광주에 현대자동차 완성차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도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날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달빛내륙철도가 꼽힌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6조3087억원 규모의 국책사

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시가 연결돼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를 통해 달빛내륙철도를 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지역별 특화 산업은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대구 첨단 의료융합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전북 농생명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MICE 등이다.

또 광주는 ▲전장부품 기반 구축 ▲자율주행 카넥티드카 부품 산업 육성 ▲멀티터미널 직류배전 시스템 개발 ▲수소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노후 신단 경쟁력 강화 및 재정비 지원 ▲스마트기전 ▲디지털 생체의료 육성 등의 사업이 이 계획에 포함됐다.

전남은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연륙·연도교 확충 ▲남해안철도 복선전철화 ▲경전선 전철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이 지역 내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안정되고 풍족있는 삶을 누리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을 도출했다.

이 밖에도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전남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을 2018년 2만 5000여명에서 2022년 3만4000여명으로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2년 250개소로 늘려 보건·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않기로

지형과 조류, 물고기 습성을 고려해 대구(漁具)를 설치하거나 활용해 고기잡이를 하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전통어로방식은 생업적인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술, 지식 등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에서 전하는 전통 어업문화 공간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통어로방식은 고대에 어구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어랑(魚梁)이라는 문구에서도 실체와 역사성이 확인된다.

어랑은 대나무 받을 치거나 돌을 쌓아 영대 있을 뿐 아니라 전통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같은 어구가 등장했다. 방렴은 대나무 받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 아래에 무거운 짐들을 매단 어구이며, 장살은 고정된 나무 기둥 사이에 대나무 대신 그물을 설치한 도구다.

당시 어로방식은 보물 제572호 '단원 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 묘사됐다. 바다에 대나무 받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고파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쇠퇴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에는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을 뿐 아니라 전통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북미,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나선 듯"

### 국정원 밝혀...정상회담 시기·장소 막판 조율

국정정보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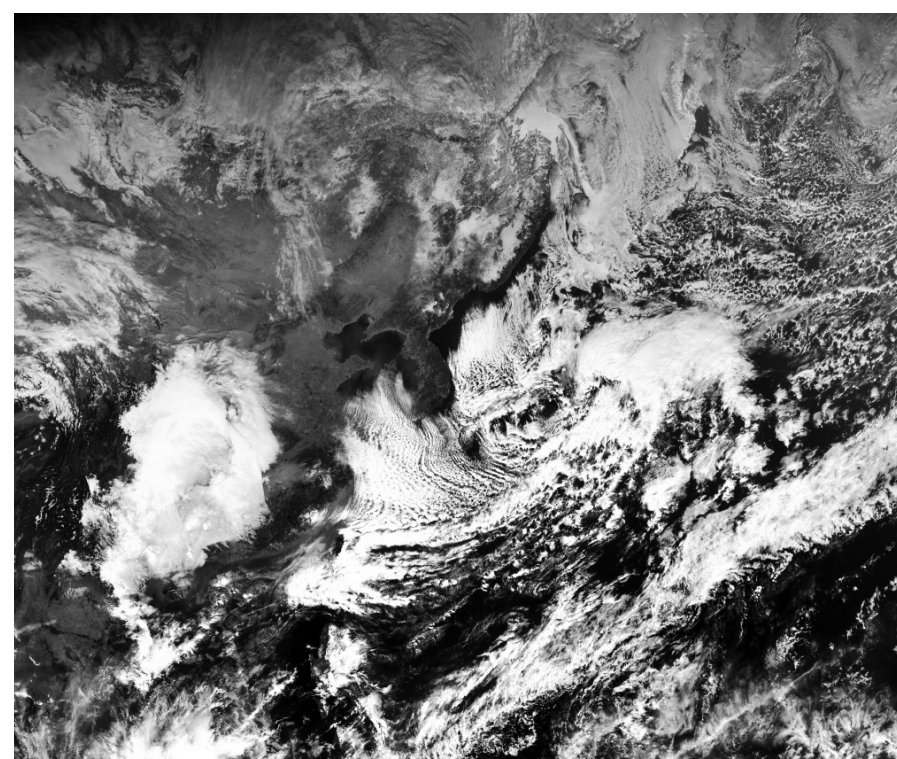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중·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과 관련,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북미가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고, 실무 협상도 본격화한 만큼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개최국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상회담 실무팀이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와 태국 방콕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견됐다. 회담장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천리안 첫 지구 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상청이 29일 천리안 위성 2A호가 발사 17일 만에 3만6000km 높이의 목표 정지궤도에 올랐으며, 한 달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 후 기상탐재체 경동 커버를 열고 지난 26일 낮 12시 10분 첫 지구 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천리안 위성 2A호가 촬영한 한반도 모습. /연합뉴스

## 국민 여가시간 증가...TV 시청 1위

### 지난해 평일 3.3시간·휴일 5.3시간...월 여가비 15만원

지난해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3시간,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또한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1000원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만5000원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1순위 기준)은 텔레비전 시청이었다. 하지만 그 비중은 2014년 51.4%→2016년 46.4%→2018년 45.7%로 매년 감소했다. 또한 휴식 활동(86.0%)이 처음으로 취미·오락 활동(90.5%)보다 적게 조사돼 과거보다 소극적 여가활동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45위...전년비 6계단 상승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

구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덴마크(88점)가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87점),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 전남도 태양광·풍력 주민 참여 도민발전소 추진

전남도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5GW 규모의 도민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수목적법인에는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주민들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 사업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 참여는 최소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주주로 참여해야 한다.

1가구당 주식형은 1000만~3000만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발전소 인건이 아니라도 전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남도민이면 채권 매입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다.

전남도는 100MW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 발전소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는 도민의 SPC 지분 참여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민간 주도형 발전소는 10% 이상 도민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공공주도형은 여수시 울촌산단 주차장에 3.8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등 모두 5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주도형은 태양광발전소 8개와 해상 풍력발전소 6개 등 14개를 준비 중이며 3곳을 새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한다.

전남도는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는 민간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면서 도민설명, 도민 공모,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주도형 발전소의 경우 도민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시되고,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욱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오천 경매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1억원 이상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H. 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임야 단독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 매 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 장 업 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 (주) 조은일부동산

☎ 010-3111-5087

##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li> <li>·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li> <li>·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li> <li>·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li> <li>·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li> </ul>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